

당신의 가치를 올려주는 명품 교육콘텐츠

서울사이버대학교

해외 유수의 명문대학과 국내 최고의 교수진을 만날 수 있는
서울사이버대학교의 명품 교육콘텐츠가 당신의 가치를 올려드립니다.

- 교육부 종합평가 최우수 사이버대학교
- 고등교육기관 승격 4년제 대학교
- 사이버대학교 중 장학금 수혜율 1위

www.iscu.ac.kr

전공분야

- ▶ 인간복지학부 : 노인복지학과, 복지시설경영과, 사회복지학과
- ▶ 심리·상담학부 : 가족상담학과, 군경상담학과, 상담심리학과
- ▶ 사회과학부 : 법무행정학과, 보건행정학과, 부동산학과
- ▶ 경상학부 : 국제무역물류학과, 경영학과, 금융보험학과
- ▶ IT·디자인학부 : 멀티미디어디자인학과, 컴퓨터정보통신학과

2010학년도 상반기 신·편입생 모집

- ▶ 2009년 12월 1일(화)~12월 29일(화)
- ▶ 입학문의 : 02-944-5000



신일(信一)의 신과 一을 조합한 모습의 로고는
일류의 Ace, 처음의 Alpha를 상징하며
훌륭한 인재를 키우고자 하는 건학이념을 나타냅니다.

학교법인
신일학원



서울사이버대학교

www.iscu.ac.kr



서울사이버대학교 방문을 환영합니다. 지하철 4호선 미아(서울사이버대학)역 입니다.



2009

한국대학신문
대학부문대상

교육콘텐츠우수대학

scu e야기

e 세상을 움직이는
서울사이버대학교

Vol. 7

Cyber World
사이버시대의 예술

Scu today
국내 최초, 모듈화 기반한 콘텐츠 개발
종합정보시스템 개발 현황과 기대 효과

여기 e 사람
부총장 / 사이버평생교육원장 양병무

SCU Today
서울사이버대학 유망학과들



ISSN 2006-2049



9 772005 204905

학교법인
신일학원



서울사이버대학교
www.iscu.ac.kr

글로벌 인재육성의 요람 **서울사이버대학교**

글로벌 네트워크로 최상 최고의 교육서비스 실현한다

글로벌이 곧 경쟁력인 시대다. 2000년 국내 사이버대학교 최초로 4년제 온라인대학교 설립인가를 받았던 서울사이버대학교는, 양질의 교육콘텐츠로 명문 온라인대학교의 명성을 이어가는 한편 글로벌 인재양성에도 힘을 쏟으며 교과부 선정 '최우수 원격대학' 평가를 받았다. 여기에 사이버대학교로는 이례적으로 학생 중심 최적의 교육환경조성을 위한 첨단 콘텐츠개발, 세계 유수의 명문대학교와 글로벌네트워크를 구축하며 '사이버대학교의 글로벌리더'로 자리매김해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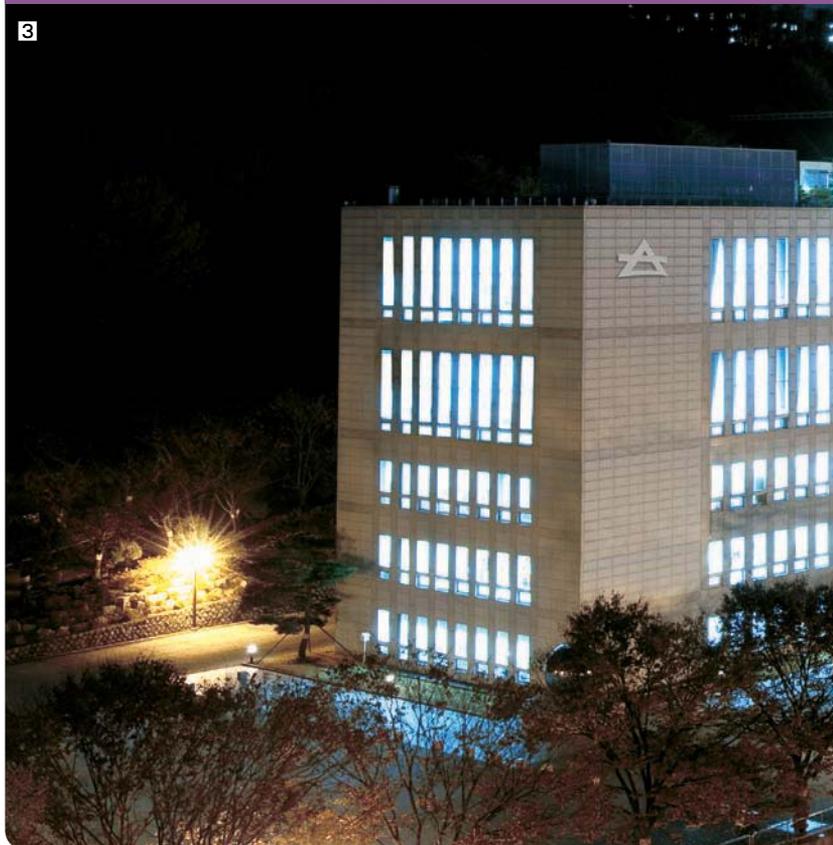
교육시장의 개방과 가속화에 따라 온라인대학 시장에도 글로벌경쟁시대가 도래하고 있다. 서울사이버대학교는 이 같은 교육의 글로벌화 추세에 발맞춰 '사이버대학의 글로벌리더'를 비전으로 설정하고 글로벌인재 양성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서울사이버대학교는 핵심전략의 하나로 외국대학교와의 협력 확대 및 해외원격교육시장 진출을 세부 추진과제로 삼고 있다.

이를 통해 국내외 우수대학교 교육기관 연수 및 방문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한편, 연구년제를 도입해 교직원의 전문능력을 배가시킨다는 것이다. 또한 우수 해외대학교와의 협약확대로 수업용 콘텐츠 교류, 교육과정 분석 및 도입 등으로 광범위하게 넓혀가고 있다. 현재까지 스웨덴 스톡홀름 대학교와 복지 분야, 미국 초완대학교와 법무행정 및 심리상담 분야, 미국 존스홉킨스대학교(JHU)와 창업지도사 자격증, 프로젝트관리사(PMP) 자격증 과정 운영 등 교수학습모델의 글로벌화가 추진되고 있다.

여기에 러시아 국립이르쿠츠크대와 국립극동대, 미국 콜로라도 크리스천대, 싱가포르 폴리테크닉대, 태국 치앙마이이라자밧대, 중국 하얼빈공정대학교, 독일 벡터대학교 등 세계 유수의 명문대학교 교육·학술 교류 협력협정을 체결해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했다.



교육의 글로벌 경쟁시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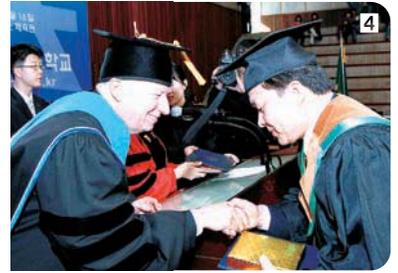
이를 통해 대학 간 공동 연구와 콘텐츠 교류를 활성화하고, 재학생들의 해외탐방 기회도 확대 지원하고 있다.

학과별 주최로 진행되는 각종 국제학술대회, 해외 협력대 학교수를 초빙한 특강도 인기가 높다. 재학생 및 일반수요를 분석해 공동학위 및 복수학위 프로그램, 국제전문자격증 과정도 기획 추진 중에 있다.

지난 9월에는 국내 대학 최초로 국제 e러닝 표준 개발 컨소시엄인 'IMS GLC(글로벌 러닝 컨소시엄)'에 정식회원으로 가입했다. IMS GLC는 1999년부터 약 19종 이상의 e러닝 표준화 규격을 발표하는 등 국제 e러닝 분야에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단체다. 따라서 서울사이버대학교는 e러닝 관련 표준으로 새롭게 대두되고 있는 'IMS 커먼 카트리지'를 기반으로 한 e러닝 시스템을 국내 최초로 구축할 수 있게 됐다.

'사이버대학의 글로벌 리더, 지식공유를 통한 전문역량 강화의 파트너'를 비전으로 하는 서울사이버대학교는 교육의 글로벌경쟁시대에서 더욱 경쟁력 있는 이름으로 거듭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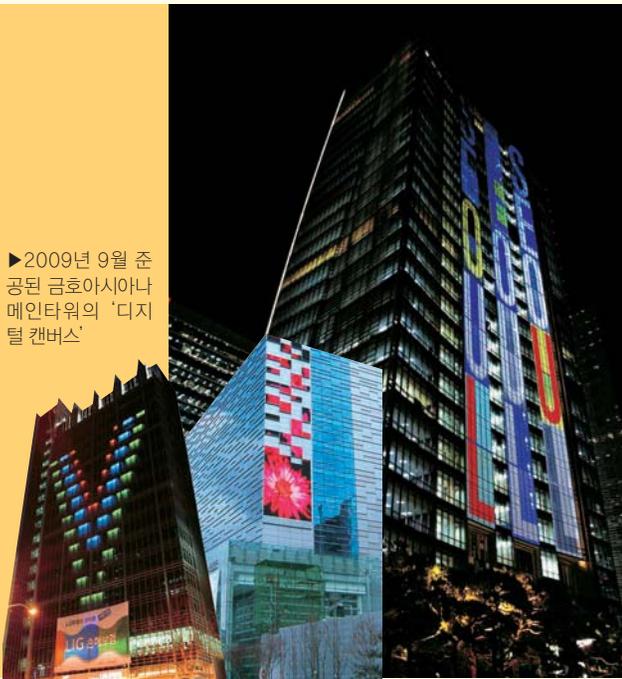
- 1 인간복지학부(사회복지학과, 노인복지학과, 복지시설경영학과) 주최로 개최된 스웨덴 스톡홀름대 교수 초청 학술대회
- 2 학생중심 최적의 교육환경 조성과 양질의 콘텐츠를 제공하는 서울사이버대학교의 국제회의실
- 3 서울사이버대학교 야간 전경
- 4 서울사이버대학교는 미국 존스홉킨스대(JHU) 과 창업지도사 자격증, 프로젝트관리사(PMP) 자격증 과정 운영 등을 운영해 교수 학습 모델의 글로벌화를 실현하고 있다.
- 5 글로벌 인재양성을 위한 서울사이버대학교의 노력은 교육부 선정, 최우수 원격대학 평가를 받았다.
- 6 서울사이버대학교는 7월 13일 중국 하얼빈 공정대학교와 교육분야 공동연구 및 우호증진을 위한 협약식을 가졌다.



서울사이버대학교가 곧 경쟁력이다



▶ 2009년 9월 준공된 금호아시아나 메인타워의 '디지털 캔버스'



2009년 9월 준공된 금호아시아나 메인타워의 '디지털 캔버스'

디지털, 예술과 만나다

새로운 세계 여는 아름다운 힘

바야흐로 사이버시대다. 디지털 미디어의 발달은 미술, 문학, 음악, 패션 등 다양한 예술양식에도 영향을 미쳤다. 그 중심에 있는 것이 바로 사이버아트이다. 어느덧 사이버아트가 새로운 세계를 여는 힘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글 | 편집부

얼마 전, 서울역 앞이 변신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황량해 보이던 서울역 앞은 아름다운 아트쉘터와 서울스퀘어로 새로운 면모를 갖추게 되었다. 특히 옛 대우센터 빌딩을 리모델링하여 탄생한 서울스퀘어의 미디어파사드는 건물 정면 지상 4층부터 23층까지 가로 99m, 세로 78m 크기의 미디어캔버스 7,722㎡ 면적에 4만 2,000개의 LED 도트를 심어 미디어아트 작품 중 세계 최대 규모로 기념스북에 등재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줄리언 오피, 양만기, 문정원, 김신일, 류호열 등 다양한 미디어아티스트들의 작품이 대중들에게 선보이게 된다.

이처럼 디지털미디어는 어느새 사이버아트라는 또 다른 세계로 우리 곁에 한 걸음 다가와 있다. 21세기에 들어선 이후, 디지털 미디어를 활용한 다양한 예술작업들은 더욱 자리를 잡은 분위기다. 컴퓨터그래픽이나 넷 아트, 인터랙티브 아트 등은 이미 예술의 한 장르로 확고한 위치를 구축하고 있다. 또한 국내에서도 디지털예술학이라는 명칭 아래, 다양한 학문들이 연계되어 미래의 예술에 대한 전망을 고찰하는 학문적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다.



서울사이버대학교에서는 사이버아트를 활용하여 2010 카렌다를 제작했다.

류재하(1960~) 작품 미디어아티스트. 최근 작가는 미디어 조각이란 형식을 새롭게 구축하면서 입체와 관객의 몰입에 대한 다양한 가능성을 실험하고 있다.



김성호, 디지털 정물화



1



2



3

- 1 롯데백화점 본점은 연말조명으로 설치한 LED조명에 미디어 송출기능을 접목해 미디어 파사드로 활용하고 있다
- 2 21세기에 들어선 이후, 디지털 미디어를 활용한 다양한 예술 작업들은 더욱 자리를 잡은 분위기이다. 컴퓨터그래픽이나 넷아트, 인터랙티브 아트 등 역시 오늘날 예술의 한 장르로 그 위치를 인정받고 있다.

김희선(1966~) 작품
미디어아티스트, Hector 예술상 2위, KHM 프로젝트 지원장학금, NRW 젊은 미디어 아트 작가상, 칼스루에 국제미디어 아트상 등 다수의 수상 경력이 있다.

21세기의 필연적 선택, 사이버아트

사이버는 '컴퓨터와 관계있는, 컴퓨터(네트워크)' 라는 의미로 최첨단의 과학문명을 대표하는 단어다. 빠르게 우리 삶 속으로 들어오고 있는 컴퓨터로 인해 컴퓨터그래픽스를 중심으로 한 가상 현실이 등장하면서 예술분야에도 새로운 변화가 일어났다.

선사시대 이래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수없이 많은 예술가들이 긴긴 세월 인류를 위해 여러 걸작들을 창작하였다. 그러나 그 시간의 무게만큼이나, 거듭되는 창조에서 발생하는 예술적 한계 또한 무시할 수 없는 부담으로 다가온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가운데, 기술의 발달과 함께 등장한 가상현실 시스템이 새로운 돌파구로 다가왔다.

컴퓨터가 단순한 소모품이 아닌 필수품으로 자리한 21세기에, 컴퓨터를 활용한 예술적 접근은 어찌 보면 우연이 아닌 필연에 가깝다. 또한 새로운 매체의 활용을 통한 다양한 예술적 영역의 확장은, 현재의 예술은 물론 미래의 예술에게도 좋은 영향을 미칠 것이 분명하다.

가상현실이 만들어내는 아름다운 예술

가상현실은 컴퓨터가 만들어낸 상상의 환경 속에 빠져들어 얻게 되는 경험을 의미하는 것으로, 그 속에서 사람들은 움직이고 대화하며 상호작용할 수 있다. 또한 가상현실에서 얻는 경험은 경험자가 얼마나 몰입하느냐, 경험자들이 어떻게 상호작용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이른바 테크노아트는 과학기술을 예술과 결합시켜 새로운 표현양식을 얻으려는 현대의 예술운동이다. 예술이 과학 기술과 융합한 사례는 점점 더 늘어나고 있다. 비디오를 활용한 예술 작품을 시작으로 홀로그래피 아트, 하이테크 아트 등으로 확장되고 있는 것이다. 한편, 사이버네틱 아트는 작품이 놓여있는 환경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자극에 반응하는 예술작품으로 1960년대 후반에 미국과 프랑스 등지에서 등장하였다. 이제 이러한 예술작품도 기술의 변화에 따라 점차 진화하고 있으며, 이는 넷아트, 인터랙티브 아트로 확장되고 있다. 이처럼 이제 사이버아트는 우리 삶의 일부가 되어 있으며, 더 나아가 사이버시대의 예술적 상상력이 새로운 세계를 여는 힘으로 작용할 날도 머지않은 것으로 보인다.

사이버는 '컴퓨터와 관계있는, 컴퓨터(네트워크)' 라는 의미로 최첨단의 과학문명을 대표하는 단어다. 그 어떤 기술보다도 빠르게 우리 삶 속으로 들어오고 있는 컴퓨터로 인해 컴퓨터그래픽스를 중심으로 한 가상현실이 등장하면서 예술분야에도 새로운 변화가 일어났다.

Tip 다양한 사이버아트의 세계

넷아트(Net Art)

디지털화된 이미지 세트와 프로그래밍 코드가 결합된 형태로 이루어진다. 물론 이미지만 존재하거나, 코드만으로도 존재할 수 있다. 넷아트에서는 작품의 아이디어가 정보의 리소스와 같은 기회적인 측면과 웹사이트에서 오랜 시간 머물면서 관객과 반응하면서 생각하고 증식하는 프로세스적인 측면이 강조된다.

인터랙티브 아트(Interactive Art)

관객이 작품에 직접 참여하고, 작품과 관객과의 소통을 구체화시킨 예술장르. 일례로, 1991년에 질 스코트(Jill Scott)는 '기계의 꿈(machine dreams)' 라는 작품으로 관객이 한 지점을 지날 때마다 음악소리가 나도록 만들어 관객이 작품을 완성할 수 있도록 전개한 대화형 작품을 선보였다.

국내 최초,
모듈화 기반한 콘텐츠 개발



학습자 니즈 충족하는 맞춤형 학습, 온라인 교육의 미래를 바꾼다

지금은 맞춤형 옵션이 주력인 시대다. 자동차 한 대를 구입할 때 조차 제조사나 배기량을 기준으로 출시된 제품을 고르던 때는 지났다. 엔진 등 핵심부품을 제외한 나머지는 구매자의 취향과 운전패턴에 따라 각각 선택, 구성하는 전체 옵션이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비단 자동차뿐이라. 서울사이버대학교는 모듈화에 기초한 콘텐츠 개발을 통해 학습자의 수준, 적성, 관심에 따른 개별화 수업으로 맞춤형 학습을 실현시키겠다는 포부를 현실화시키고 있다.

글 | 편집부

어쩌서 모듈화방식인가? 단도직입적으로 설명하면, 기존 수업방식의 한계에 대한 반성이자 이상적인 대안이다. 지금까지 대학수업은 온오프라인을 막론하고 교수의 지식과 경험을 체계화시켜 학생들에게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형태였다. 하지만 질의응답 정도의 커뮤니케이션으로는 지식정보사회에서 요구되는 문제해결능력, 창의력 등을 해결해주기 어렵다.

서울사이버대학교가 지난 8월 발족한 수업모듈화연구위원회는 모듈화를 통해 '제대로 된 교육'이 가능해질 것이라는 기대에 부풀어 있다. 모듈화는 e러닝을 기반으로 한 온라인의 특성상 동영상강의만으로는 부족했던 학습활동강화, 오랫동안 논의돼 왔던 학습자 능력과 적성에 따른 개별화수업을 통한 맞춤형 학습의 실천을 궁극적인 목표로 하고 있다.

그렇다면 모듈이란 어떤 개념이며 무엇을 말하는가? 박종선(교양학부, 교수학습지원센터장) 교수는 모듈이 다방면에서 필요에 따라 다양하게 쓰인다고 설명한다. 자동차의 옵션부품을 바꾸는 것처럼, 교체할 수 있는 부속품 중에서 특정기능을 하는 모든 것이 모듈이 될 수 있다. 서울사이버대학교가 진행 중인 콘텐츠모듈화에서는 학습목표, 내용, 활동, 자료, 평가 등이 모두 모듈에 해당된다. 일반적으로는 세분화될수록 좋은 모듈이라고 하지만, 단지 내용을 잘게 나누는 것만으로는 충분치 않다는 설명이다. 각 모듈에는 학습활동과 목표가 포함돼야 하며 유사과목과의 연계성도 고려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학습의 깊이와 넓이를 동시에 고려해 전체적인 그림을 그릴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 전제되어야 할 것들도 많다. 콘텐츠를 제공할 교수들의 인식변화와 노력, 교육과정을 선택할 학생들의 자발적인 요구, 콘텐츠 구축을 위해 인력과 자원을 제공할 대학의 노력도 있다. 이들 삼박자가 팀워크를 이룰 때 '제대로 된 교육'을 실현하는 최고의 모듈화 방식 콘텐츠개발이 가능하다.

한편 국내에서는 서울사이버대학이 최초로 시도하는 일인데다, 해외 대학의 성공적인 사례들조차 텍스트 기반이라, 멀티미디어를 기반으로 한 서울사이버대학교와는 실정이 많이 다르다. 엄청난 양의 콘텐츠를 효율적으로 구축하기 위한 콘텐츠의 취사선택도 남은 과제다.

수업모듈화연구위원회의 활동은 현재 궤도에 올라있다. 콘텐츠를 대량생산할 단계는 아직 아니지만 멀티미디어학과를 비롯한 일부학과에 시험 적용 중이며, 연말까지 다양한 학습모형 기반을 설계한 뒤 내년 3월부터 일부교과목에, 가을학기부터는 전체적으로 확대된다. 국내 최초로 시도되는 서울사이버대학교 선진 콘텐츠 모듈화가 대학교육의 미래를 바꿀 전망이다.



박종선(교양학부, 교수학습지원센터장) 교수는 모듈이 다방면에서 필요에 따라 다양하게 쓰인다고 설명한다.

수 년간 종합정보시스템 구축방향, 구축목표 및 각 시스템 구성방안을 검토해왔던 서울사이버대학교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은 총 4단계 과정으로 올해 초 본격적으로 가동됐다.

먼저 지난 6월까지의 본교의 제반업무 현황에 대한 분석, TO-BE모델 수립, 업무프로세서 개선, 정보화전략계획수립(ISP) 등을 정리해 구축기반을 마련했다.

다음으로는 연말까지 진행될 분석설계의 과정이다. 차세대 교수학습시스템, 학사관리시스템, 통합 상담시스템, 관련홈페이지 재구축,

포털시스템 기반 구축, 기존의 DATA 전환 및 정보인트라 재구축방안 설계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사용자들이 정보와 서비스에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다는 게 핵심이다.

세 번째 단계는 개발과정이다. 분석설계 결과에 따라 빠르면 연말부터 내년 봄까지 추진될 계획이며, 정보인프라 도입이 여기에 들어간다.

마지막 단계는 개발된 결과물에 대한 성능 테스트를 포함한 통합과정이다. 통합 행정시스템 구축, 포털 및 종합정보시스템 고도화를 내년 5월말까지 계획으로 진행돼 내년 2학기 수강신청 때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종합정보시스템이 본격 가동되면 서울사이버대학교의 교육서비스 품질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먼저 e러닝 기술진보에 따른 교수학습 패러다임의 변화에 대응해, 차별화된 사이버교육시스템의 도입으로 학습활동이 강화된다. 또한 학생들이 컴퓨터 외에도 넷북, 전자책, PDA를 활용한 U러닝 도입이 가능해져 교육환경과 공간제약을 넘어설 수 있다. 대학운영시스템의 개선으로 수업 외에 투자해야 했던 행정 및 학사일정관리도 손쉽게 할 수 있어 학교생활이 편리해질 전망이다.

학생편의를 위한 시스템개발은 타 사이버대학에서도 부분적으로 해왔던 노력이지만, 그러나 서울사이버대학교가 총체적으로 진행하는 종합정보시스템과 같은 사례는 없었다. 서울사이버대학교가 사이버 커뮤니케이션의 한계를 넘어서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이라는 진정한 사이버대학의 경쟁력을 갖추게 됨으로써 '사이버대학의 글로벌리더'를 앞당길 날이 기대된다.



기획조정실 박용원 부처장은 사용자, 즉 학생들로부터 그동안 불편했던 사항이나 개선점에 대한 의견을 듣고, 시스템구축에 적용시킬 예정이라고 이야기한다.



종합정보시스템 개발 현황과 기대 효과

사용자에 의한, 사용자를 위한 e-Learning 패러다임 세대교체

서울사이버대학교가 국내 원격 고등교육을 선도하는 최우수사이버대학에 걸맞는 종합정보시스템 구축방안을 계획한 것은 수년전부터다. 특히 2009년도 고등교육기관 전환에 따른 대학정보공시제, 입학전형절차의 강화 등의 까다로워진 요구조건을 충족시키는 한편, 학습자중심의 정보서비스를 위한 학습지원 커뮤니케이션 채널 강화, e러닝 기술발전 및 교수학습 패러다임을 반영한 시스템 구축 등이 필수요소로 대두되면서 본격적인 시스템 구축이 활기를 띠고 있다.

글 | 편집부

■ 종합정보시스템 구성도



부총장/사이버평생교육원 원장 양병무

차별화되고 특화된 콘텐츠로 평생교육의 메카 구축



지금은 평생학습시대, 급변하는 지식정보사회에서 스스로의 경쟁력을 높이고, 제2기의 인생을 열어가는 기반을 다지기 위해서는 누구 하나 예외 없이 평생학습에 매진해야한다. 양병무 원장은 이와 같은 분명한 소신으로 평생학습에 관한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고자 오늘도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

글 | 편집부

“평생학습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그동안 저는 평생교육에 관한 강의를 많이 했었고, 그 누구보다도 강조해온 사람입니다. 노사문제, 노동경제문제, 인사관리를 비롯한 리더십 등 다양한 분야의 내용을 다루면서 평생교육의 중요성에 대해서 늘 이야기해왔지요.”

지난 8월 1일, 제5대 사이버평생교육원장으로 부임한 양병무 교수는 분주한 시간을 보냈다. 평생교육시대에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게 될 사이버평생교육원의 남다른 경쟁력 강화 방안을 고심하고, 이제까지의 성과 등을 조명하기 위한 그간의 노력에 어느덧 빛이 보이고 있었다. 가장 먼저 한 일은 사이버대학 최초로 설립된 평생교육원으로서 달성한 ‘최초 시리즈 TOP 10’ 리스트를 만든 것. 덕분에 ‘최초·최고에 도전한다’는 설립

평생교육시대에 중추적인 역할을 감당하게 될 사이버평생교육원의 남다른 경쟁력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양병무 원장. 그는 차별화된 콘텐츠로 기업,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연계교육을 확대하여 평생교육의 메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한다.

정신은 서울사이버대학교 평생교육원의 확고부동한 신념으로 확인됐다.

〈감자탕교회 이야기〉, 〈행복한 논어읽기〉 등 35권이 넘는 책을 써온 베스트셀러의 저자이기도 한 그는 논어에 나오는 ‘학이시습지 불역열호(學而時習之 不亦說乎)’라는 문구를 인용한다.

“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있지요. 논어는 ‘배우고 그것을 제 때에 실행하면 기쁘지 아니한가’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문장인데, 바로 평생학습을 강조한 것입니다. 이제 사이버평생교육원장으로 일하고 있는 만큼, 이제 오프라인과 온라인 양방향으로 이런 중요한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되어 감사한 마음이지요.”

특히, 최근 노동부의 고용보험환급과정인 직업능력개발 훈련기관 평가에서 한 단계 올라선 B등급을 획득한 사실은 그에게 자부심을 심어 주었다. 그동안 평생교육원은 2006년부터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위탁교육을 받아 성공적인 노후를 위한 프로그램인 CSA (Consultant on Successful Aging) 교육을 온라인으로 실시해왔다. 이는 사이버대학 중 최초로 외부기관에서 위탁을 받아 실시한 사례다. 일반적으로 B등급은 주목할 만한 성적표가 아니지만, 평가내용을 잘 아는 이들이라면 쉽지 않은 성과에 큰 박수를 칠 수밖에 없다. 더구나 서울사이버대학교는 사이버대학 중에서는 유일한 평가대상이었다. 이에 따라 사이버평생교육원에서 교육을 받는 이들은 근로자 수감지원금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사이버평생교육원이 역대 원장님들의 헌신 덕분에 지금까지 최초 시리즈의 역사를 이어왔습니다. 앞으로도 차별화된 콘텐츠로 기업,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연계교육을 확대하여 평생교육의 메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금숙 · 정다운 · 정슬기 학생 가족



한 지붕 세 식구, SCU 가족으로 살아요~

흔히들, 같은 울타리 안에서 어울리는 사람들을 일컬어 ‘한술밥 먹는 가족’이라고 말한다. 그런데 여기 진짜로 한술밥 먹는 식구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한 지붕 아래에서 한술밥을 먹으며, 캠퍼스 등 문으로도 엮여있는 세 사람. 각기 다른 전공을 공부하며 내실 있는 인생을 살고 있는 정금숙, 정다운, 정슬기 학생 가족이 느낀 서울사이버대학교의 매력은 무엇이었을까?

글 | 편집부

간 혹 모자(母子)나 부녀(父女)가 나란히 같은 대학에 다니는 일이 화제가 되고는 한다. 그만큼 한 가족이 같은 캠퍼스에 다닌다는 것은 보기 드문 일이기도 하고, 또 보기 좋은 일이기도 하다. 그런 면에서 정금숙, 정다운, 정슬기 학생은 서울사이버대학교의 공인된 행복가족인 셈이다.

대학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가장 먼저 고려한 것은 다름 아닌 캠퍼스였다. 그러나 앞서 알아본 사이버대학들에서는 한결 같이 ‘캠퍼스가 없다’는 대답만 들었다. 그리고 운명처럼 서울사이버대학교를 만나게 됐다. 사이버대학에 웹 캠퍼스 타령이냐고 반문할 지도 모르지만, 이들에게는 꽤 중요한 기준이었다. 사이버대학이라도 캠퍼스 생활도 누릴 수 있어야 한다는 판단이 앞섰기 때문이다.

“아들 둘 모두 입학하고 월요일과 화요일은 꼭 학교에 갔어요. 그리고 수업을 미루지 않고 들었습니다. 덕분에 교수님들의 조언도 많이 듣고, 학과 모임에도 빠지지 않고 참석하며 즐거운 대학생활을 보내고 있습니다. 저 역시 주초에 모든 수업을 듣는다는 원칙만큼은 꼭 지키고 있지요.”

세 사람은 전공도 각기 다르다. 현재 남편과 함께 무역업에 종사하고 있는 정금숙 학생은 국제무역물류학과, 현재 휴학하고 공군에서 군 복무 중인 큰 아들 정다운 학생은 법무행정학과, 막내 정슬기 학생은 경영학과에 재학 중이다.

과거 수학을 전공한 정금숙 학생은 이처럼 새로운 전공을 맞아 늦깎이 열정을 불태우며 즐거운 인생을 살고 있다. 특히 1학년을 마치고 군대에 간 큰 아들이 자신만의 미래를 준비하고 계획하는 모습을 볼 때면, 더욱 잘한 결정이었다는 생각이 든다고.

“나중에 어떤 공부를 하더라도, 서울사이버대학교에서 보낸 4년은 향후 쌓게 될 지식의 기반이 될 거라고 믿어요. 공부는 결국 자신이 하는 거 아닌가요. 요즘은 평생 공부하는 시대잖아요. 우리 가족 모두 서로가 서로에게 격려와 자극을 주면서 성장해갈 겁니다.”



정금숙 학생은 국제무역물류학과, 현재 휴학하고 공군에서 군 복무 중인 큰 아들 정다운 학생은 법무행정학과, 막내 정슬기 학생은 경영학과에 재학 중이다.



미래경쟁력 선도하는 서울사이버대학교 유망학과들

‘크리에이티브 & 하이브리드’ 미래형 대학에서 다음 세상 리더를 만나다

글로벌 시대 고급 인력 확보가 국가와 기업 경쟁력의 핵심 요소로 부각되면서 대학들의 인재 양성에 변화가 일고 있다. 특히 세계 경쟁력 확보와 고부가가치 산업 선점 등 핵심 산업 분야의 인재 양성에 대한 요구와 중요성이 높아졌다. 그런 의미에서 서울사이버대학교는 복지, 카운슬링, 행정, 금융, IT 등 향후 100년을 내다보는 유망한 분야이자 인류의 건강한 삶의 질을 책임질 산업과 관련된 특성화된 학과를 운영함으로써 미래지향적 인재 양성에 힘을 쏟고 있다. 이에 미래 경쟁력을 선도할 산업과 이를 이끌어갈 실력 있는 인재를 키우고 있는 서울사이버대학교의 유망학과들을 조명해 본다.

글 | 편집부



각 분야 전문가들의 연구와 전망을 보면 미래 사회는 지식기반 경제 및 산업 체제로의 전환, 정보화, 세계화, 다양성, 전문성 등의 특성을 보인다. 이는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조사결과에도 나타난다. 앞으로는 금융, 컨설팅, 디자인, 연구·개발(R&D) 등 부가가치가 높은 서비스 부문과 컴퓨터, 영상애니메이션 등이 전망이 밝은 직종으로 분류됐다. 고도의 소비생활과 생산 활동을 선도하는 기업컨설팅전문가, 마케팅전문가, 선진적인 사회일수록 중요성이 더욱 커지는 사회복지전문가와 보험 관련 전문가, 예술분야 전문직의 전망도 매우 높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이 같은 시대적 변화에 발맞춰 서울사이버대학교는 미래 경쟁력을 선도할 유망 산업을 이끌어갈 능력 있는 인재 양성을 목표로 인간복지, 심리와 상담, 금융, 글로벌 전문 경영, 정보통신과 디자인 등의 분야와 관련, 창조적이고 핵심적인 특성화된 14개 학과를 운영하고 있다.

미래 사회가 추구하는 인류의 행복한 삶

산업 발전과 더불어 급속한 고령화와 저출산, 질병양상의 변화로 인해 더욱 중요하게 인식되는 분야가 바로 삶의 질과 직결된 복지 산업이다. 복지는 인간 대중을 대상으로 절대적 및 상대적 빈곤과 저소득에 있는 자와 그의 가족, 사고 때문에 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자를 대상으로 공중위생 교육, 주택정책 등에 걸치는 광범위한 제 시책을 포함하는 포괄개념이다.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의 멘토 사회복지학과

현대화, 산업화,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발생하는 많은 사회 문제를 연구하고 이에 대한 실질적 해결방안을 모색함으로써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것이 바로 사회복지학과의 목표이다. 특히 일반적인 지역사회복지뿐만 아니라 미래 사회에 필수적인 사회보장제도, 산업복지 등을 실현하기 위한 이론과 방법을 탐구하고

더불어 실무 능력까지 골고루 갖춘 복지전문가를 양성하는 데에 힘을 모으고 있다.

2009 학과경쟁력 사업 사회복지학과는 거점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빈곤지역 특성별 지역아동센터 운영 모델을 연구하는 사업을 계획하였다. 이 사업은 사회복지학과와 전문화와 경쟁력을 강화하고 졸업생에게는 취업과 창업모델을, 재학생에게는 실습 자원을 제공함으로써 SCU 사회복지 전문가 Network 구축, 학과 발전, 지역사회 발전, 서울사이버대학교의 사회공헌활동 등 다양한 효과가 기대된다.

노인복지 전문가 양성 노인복지학과

노인복지학과는 노인에 대한 복지, 신체, 심리, 사회, 산업, 정책적 측면에 관한 다양한 지식과 기술, 훈련 기회를 제공해 다가오는 고령화 시대를 책임질 노인복지사, 실버산업전문가, 케어복지사, 노인전문상담사 등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있다. 특히 실버산업 창업과 전문 경영인으로서 활동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

기 위해 일본의 노인복지 이론 및 실무영역 전문가를 초청, 현안에 대한 한일비교 학술대회를 개최함으로써 재학생과 졸업생에게 타 사이버대학교 차별화된 수준 높은 학습과 현장전문가와의 만남을 통한 진로 상담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2009 학과경쟁력 사업 노인복지학과는 고령화 사회를 먼저 경험한 일본의 노인복지 이론 및 실무영역 전문가를 2명 초청하여 현안에 대한 한일비교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 사업은 재학생과 졸업생에게 타 사이버대학교 차별화된 수준 높은 학습과 현장전문가와의 만남을 통한 진로 상담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학교에 대한 자긍심을 높이고 대외적으로 학과 및 학교의 위상을 강화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2009년 10월 31일 사회복지학과와 스웨덴 스톡홀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진이 공동개최한 학술대회 모습. 스웨덴 사회복지의 현황과 전망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학술대회에는 정신보건 분야의 거장 베리마크 교수와 아동복지 서비스 분야의 샬라스 교수 등이 초빙되었다.



▲노인복지학과는 고령화 사회를 먼저 경험한 일본의 노인복지 이론 및 실무영역 전문가를 초청, 현안에 대한 한일비교 학술대회를 개최하여 학생들에게 타 사이버대학교 차별화된 수준 높은 학습과 현장전문가와의 만남을 통한 진로 상담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Mini Interview

복지시설경영학과 권금주 교수

사회복지 가치 지닌 경영 전문가 요구

“오늘날의 사회복지자는 차별화되고 효과적인 서비스 창출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복지기관 및 시설 경영에 있어 최신 이론과 함께 실용적이고 실제적인 경영 노하우를 가진 전문 경영자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권금주 교수는 복지시설 경영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이 사회복지 가치를 바로 알고 이를 바탕으로 전문적인 경영 능력을 펼치는 것이라고 말한다.

“사회복지시설 경영은 일반 기업 경영과는 다릅니다. 투철한 사회복지 가치를 구현하는 가운데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사회복지서비스를 실행할 수 있는 두 가지 능력을 골고루 갖춰야 합니다. 어떤 분야보다 전문가가 필요한 분야이고 그래서 전망 또한 매우 밝다고 자부합니다.”

미래 유망 산업은 전체적으로 지식 집약적 성격이 더욱 강화될 것이다. 산업 혁명 이전 고도로 숙련된 기술자들만이 하던 일을 새로운 기계가 대체하였듯 컴퓨터의 발전과 사용 증대로 다양한 기술 결합, 지식 집약적 성격의 산업이 상당 수준 증가될 것이다. 또한 생활 패턴과 인구 구조의 변화와 노인 인구의 증가에 따라 복지 및 보건, 상담 관련 산업 역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할 전망이다. 직업의 전문화, 국제화, 개방화가 가속화되면서 예술, 디자인, 경영, 행정 등의 분야에 대한 글로벌 전문 인력 수요가 급증하고 정보화 사회, 첨단 기술 개발과 보급, 활용에 대한 요구도 점점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사회복지를 실천하는 전문경영인 양성 복지시설경영학과

복지시설경영학과는 시대적 요구에 앞서 일반 복지 관련 학과와 차별화된 커리큘럼을 운영하며 복지기관 및 시설 운영에 필요한 실제적 지식과 기술을 겸비한 유능한 사회복지시설경영전문가를 키우고 있다. 전공과정으로 ‘사회복지사 2급’ 관련 전공과정, 복지시설경영 일반 전공과정, ‘복지시설경영사’ 자격 취득 전공과정이 있으며 관련 학과 전공과목과 연계하여 ‘건강가정사’, ‘케어복지사’, ‘보육교사’ 등의 자격을 취득할 수도 있다.



▲선진화된 사회일수록 더욱 차별화되고 효과적인 사회복지 서비스가 요구되면서 실제로 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전문경영인이나 사회복지시설의 중간 또는 최고경영인에 대한 필요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Psychology & Counseling

건강한 사회 만드는 원동력

점점 복잡하고 경쟁적으로 변화하는 사회 속에서 현대인은 다양한 종류의 심리적 스트레스와 인간관계의 갈등을 경험하게 된다. 반면, 전통적인 한국 문화에서 상담자의 역할을 담당하던 가족이나 친구 등의 정서적 지지기능 및 삶의 의미부여 기능이 감소함에 따라 심리상담 분야의 중요성이 갈수록 부각되고 있다.

심리학은 ‘인간은 무엇인가’라는 기본적인 문제를 경험적으로 다루는 학문으로, 인간 행동의 원리에 대해 과학적인 통찰력을 제시하여 문학, 역사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경영학, 경제학, 법학 등에 이르는 다양한 학문의 기초학문으로 역할하고 있다. 특히 심리학의 응용분야인 상담심리학, 임상심리학, 산업심리학, 법 심리학 등은 기초 심리학의 지식을 인간 생활에 적용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제반 문제를 해결하고 개인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직접 기여하고 있다.



▲상담심리학과는 학과경쟁력 사업의 일환으로 다양한 상담자격을 소지한 전문가를 초빙하는 심포지엄을 열어 학생들의 자격증 취득 준비를 돕고 학과의 중장기적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힘을 기울이고 있다.

수준별 자격증별
교과과정 갖춘
상담심리학과

정신·심리적 건강을 보호하고 관리하는 데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상담심리전문가의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상담심리학과는 이런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상담 및 심리전문가 양성을 목표로 인간의 성장과 발달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킬 수 있는 심리학 기초 및 심화 교과목과, 상담 현장에서 요구되는 상담심리전문가로서 필요한 지식과 능력을 증진할 수 있도록 상담심리학이론 및 상담 및 심리치료 실제에 초점을 둔 교과목을 체계적으로 교육하고 있다.

2009 학과경쟁력 사업 상담심리학과는 다양한 상담자격증을 소지한 전문가를 초빙하는 심포지엄을 통해 학생들의 자격증 취득 준비를 돕고 학과의 중장기적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이 사업은 관심 분야의 전문가들이 현장에서 실제로 하고 있는 업무에 대해 자세히 알게 됨으로써 학생들의 진로결정에 도움을 주고, 그 밖에 학교 및 학과에 대한 자부심과 긍정적인 이미지 제고, 일반인에게 상담심리학 관련 교육 기회 제공을 통한 사회공헌 등 다양한 효과가 기대된다.

미래형 직업 전문
가족치료사 키우는
가족상담학과

가족상담학과는 국내 최초의 온라인 가족상담학과로 개인과 가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가족 치료 전문가를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기본적인 인간에 대한 심리학적 이해와 인간 발달단계에 따른 이해를 도모하고 상담 기초이론, 가족전문 상담이론 등을 통하여 실제로 가족 상담을 진행하는데 필요한 여러 가지 기법과 실제 진행과정을 여러 형태의 자료를 통해 학습할 수 있도록 교과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졸업 후에는 가족상담사, 가족치료사, 청소년 상담사, 상담심리사 등의 전문적인 자격증을 취득하여 가족상담 전문클리닉을 개설하거나 관련 기관에서 전문 가족치료사로 활동할 수 있다.



▲가족상담학과 주최로 열린 세계적인 갈등조정 전문가 독일 페히타대학 심리학과 카이저(P. Kaiser) 교수 초청 특강 모습. 가족 또는 부부 사이 갈등 조정과 가족치료 및 상담 분야는 국내외를 막론하고 현대사회의 중요한 전문분야로 자리잡고 있다.

심리상담 분야의
블루오션
군경상담학과

2007년 제1회 교육인적자원부 원격대학 종합평가에서 최우수대학으로 선정된 서울사이버대학교 심리상담학부의 군경상담학과는 군내 전문심리상담관(군상담사) 양성 및 경찰 및 교도분야에서의 심리상담전문가 양성, 그리고 제대 군인 및 경찰의 전직을 지원하는데 그 교육적 목표를 두고 국내 최초로 4년제 대학에 설립되었다. 군경상담학과는 이를 위해 군과 경찰 관련 특수상담분야 교과목을 체계적으로 구성하고 동일학부인 심리상담학부내의 상담심리학과, 가족상담학과와의 긴밀한 학제적 접근을 통해 심층적이며 포괄적인 교육과정의 통합효과를 극대화하고 있다.

Mini Interview

상담심리학과 조영아 교수

사회문제 및
행복한 삶의 방법 해결

“상담심리 산업에 대한 수요는 점점 증가할 전망입니다. 기업이나 경찰, 학교는 물론 최근 더욱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다문화가정 문제, 또 인터넷 중독이나 성범죄 같은 중요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 개인 모두가 행복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정신적 필요와 삶의 안정이기 때문입니다.”



조영아 교수는 특히 상담심리학과가 타 대학들과 비교해 높은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고 말한다.

“우리 상담심리학과는 재학생·졸업생 간 네트워크가 잘 구축돼 있어 돈독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진로 및 진학 지도 시스템 역시 잘 갖추고 있습니다. 때문에 상담심리학을 복수 전공하는 비율 또한 매우 높은 편입니다. 학문의 특성상 자기 스스로를 이해하고 인간관계를 잘 구축할 수 있으며 진로 또한 전망이 밝기에 우리 학과의 경쟁력은 점점 더 높아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군경상담학과는 군출신의 군상담사 양성 외에도 장병들의 재취업지원, 사관·부사관, 경찰관 등의 전직지원을 위해 군상담사(시행예정), 청소년상담사, 직업상담사, 사회복지사, 경찰상담사 및 리더십코치, 커리어코치 등의 취득을 돕는 다양한 교육과정을 제공하고 있다.



▲부동산 시장은 시장의 전면적 개방, 부동산의 전문화와 금융시장의 결합, 그리고 수요자 중심 시장구조의 전환 등 급격한 변화에 따른 특화된 전문가를 요구하고 있다.

Finance & Real estate

지식 기반 미래 유망 산업의 꽃

자본주의의 꽃이라고 불리는 금융서비스분야의 전망은 지식서비스 분야중에서도 상당히 밝은 편이다. 기관투자자의 투자운영을 담당하는 펀드매니저를 비롯해 보험 관련 전문가, 유무형의 모든 자산을 관리하고 투자를 돕는 자산관리사 등 전문성을 갖춘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필요한 분야이다. 금융서비스분야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부동산 역시 친환경 개발,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에 따른 전원주택이나 타운하우스 등 새로운 형태의 주택 수요 증가, 시장의 전면적 개방 등 미래 가치가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지만 반면 부동산의 전문화와 금융시장의 결합, 수요자 중심 시장구조의 전환 등 급격한 변화에 대처할 수 있는 특화된 전문가가 요구되고 있다.

부동산 시장을 선도하는 21C형 리더
부동산학과

부동산학과는 시장에 대한 체계적인 이해와 전문적인 안목을 키움으로써 부동산 산업을 체계화하고 부동산학문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21세기 글로벌 부동산 산시장의 리더, 부동산산장을 창조해가는 창조적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하여 부동산에 관한 전반적인 지식은 물론 부동산 개발, 관리 및 투자 등 실천 대비를 위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전문성을 확대하고 대학 간 학술교류 확대, 입시연계 학생모집 자료 활용, 입시지원자에 대한 학과의 수월성 홍보를 위해 학회지 발행 및 학술대회 개최 사업을 벌이는 한편 학생들을 네트워크로 연결하여 상호간의 최신 정보취득 및 급변하는 시장변화에 공동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2009 학과경쟁력 사업 | 부동산학과는 전문성을 확대하고 대학 간 학술교류 확대, 학생모집 자료 활용, 입시지원자에 대한 학과의 수월성 홍보를 위해 학회지 발행 및 학술대회 개최 사업을 계획하였다. 이 사업은 체계적 학습과 토론 기회 제공, 오프라인 활동을 통한 교수와 학생의 일체감 향상, 학술활동을 통한 부동산학과와의 질적 수준 향상과 사이버대학에서의 학과 정체성 확립 등의 기대효과가 있다.

Mini Interview

법무행정학과 김선정 교수

미래는 신뢰가 중요, 통섭형 인재 양성

“미래는 신뢰를 바탕으로 한 질서의 문제가 매우 중요시 되는 사회이며, 이러한 질서를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한 나라의 경쟁력이 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시대적, 사회적 요구가 있는 법무행정은 그 전망이 매우 밝다고 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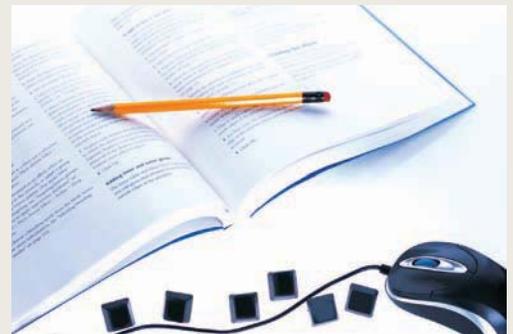
김선정 교수는 통섭형 인재 양성이 더욱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고 말한다.

“앞으로는 더욱 다양한 분야를 이해하고 숙련된 실력을 발휘할 수 있는 융합형, 복합형 직무수요가 나날이 증가할 것입니다. 법무행정학과 역시 실용적 가치를 창조하고 다양한 직무 분야에 능숙한 행정 전문가를 키우기 위해 실무 능력 교육, 대학원 진학 지도, 공직 진출 및 국가자격증 취득 등 다방면으로 힘을 쏟고 있다.”

통섭형 전문 행정인 양성의 전초기지
법무행정학과

법무행정학과는 법학과 행정학을 통합하여 운영함으로써 양 분야의 다양한 지식을 습득할 수 있고,

다양한 자격증 취득을 위한 준비과정과 폭넓은 관련지식의 습득으로 실질적 업무 능력을 갖춘 진정한 ‘통섭(Consilience, 通攝)형’ 전문가를 양성하고 있다. 이를 위해 대학과 산업현장이 직접 연계되고 현장감이 살아 있는 직무교육, 외국 우수 대학과 콘텐츠 교류, 학술교류, 외국대학발급 자격증 수여 등을 실천함으로써 글로벌 전문 교육의 선도자 역할을 수행해 나가고 있다.



▲국가·사회발전에 적합한 통섭형 인재 양성은 자기 전문 분야에 관한 깊이 있는 수준의 지식과 전문성을 전제로 다양한 방면의 생각들을 쉽게 받아들이고, 이해하며, 적용할 수 있는 유연한 사고를 가진 실용적인 가치창조형 교육으로 가능해진다.

세계적인 보건의료 행정전문가를 키우는
보건행정학과

보건행정학과는 보건의료정책, 병원경영, 의무기록관리 분야의 통합 교육과정을 개발하여 유헬스(u-Health) 기반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선도할 수 있는 지성과 인성을 갖춘 글로벌 보건의료행정전문가를 양성하고 있다. 특히 보건행정학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일본 와세다대학 국제학생학술제 참여, e-learning 콘텐츠 교류 및 공동개발 등 해외 유명 대학과 학술교류를 함으로써 학과 결속력 강화와 결과물을 통한 학과의 대내외적 홍보, 와세다대학과 공동으로 WBI를 통한 자격증 과정 운영 가능



성, 일본 내 인적네트워크 강화로 학생들의 일본유학 및 취업의 전초기지역할 등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2009 학과경쟁력 사업 | 보건행정학과는 일본 와세다대학 국제학생학술제 참여, e-learning 콘텐츠 교류 및 공동개발 등 해외 유명 대학과의 학술교류를 계획하였다. 이 사업은 국제학생학술제 준비 과정을 통해 학과 결속력 강화와 결과물을 통한 학과의 대내외적 홍보, 와세다대학과 공동으로 WB를 통한 자격증 과정 운영 가능성, 일본 내 인적네트워크 강화로 학생들의 일본유학 및 취업의 전초기지역할 등 글로벌 경쟁력 강화의 효과가 기대된다.

Global Professional Management

최고의 경쟁력 갖춘 전문가 양성



세계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IT기술의 발달에 기인한 글로벌 시장 환경에서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전 세계를 대상으로 경쟁하는 무한경쟁시대에 돌입하고 있다. 무역의준도가 높은 우리나라는 무역량 급증, 해외사업 진출, 다국적 기업 출현 등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위기를 보는 남다른 관점과 창조적 사고력을 지닌 무역전문가와 전문경영인을 양성할 필요가 있다. 전문 인력의 확보는 국가 경쟁력과 밀접하게 연관된 까닭이다. 더불어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국가적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는 국제적 실무 감각과 탁월한 대안 제시 능력을 지닌 글로벌 행정 전문가 양성도 요구되고 있다.

◀보건행정학과는 21세기 디지털 기반의 보건 의료서비스 산업에 종사할 보건의료행정분야의 창조적 전문인을 양성하여 국민건강증진과 국가보건의료산업 발전에 기여하고, 보건의료 세계화에 선도적 역할을 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경상학부에서는 11월 27일 본교 2층 국제회의실에서 스티브 김(김윤종) SYK Global 회장을 초청한 가운데 '아시아의 빌게이츠 스티브 김의 성공신화: 꿈, 희망, 미래'를 주제로 특강을 개최했다.



▲국제무역물류학과는 무역 및 물류 관련 대학 중 최고의 자리를 선점하고 학과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고 있다.

최신이론과 실무감각으로 무장한 경영학과

경영학과는 변화하는 경영패러다임과 경영의 신조류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최신 경영이론의 학습과 미래 지향적인 경영기법을 연마하여 최고의 경쟁력을 갖춘 21C형 전문 경영인과 글로벌 비즈니스 리더를 양성하고 있다. 그리고 이를 위해 전문경영인으로 구성된 경영 실무 세미나를 통하여 경영현장의 감각과 Knowhow를 습득하고 동문으로 구성된 국내 비즈니스 업계의 전국적인 휴먼 네트워크를 통하여 실무 차원의 협력 및 선후배간의 유대강화를 실천해 나가고 있다. 또한 아시아의 빌게이츠로 불리는 스티브 김(김윤중) SYK Global 회장 등의 명사를 초청하는 특별 강연을 열어 학생들의 미래 자긍심과 성취욕을 높이고 있다.

**무역, 물류, 유통
완변학 3박자 갖춘
국제무역물류학과**

국제무역물류학과는 무역실무·글로벌경영·물류유통의 개별적 학문분야를 통합한 단일의 3차원 교과과정을 개발, 전자무역시대에 필요한 무역실무지식, 기업의 글로벌 시장 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글로벌 경영안목, 국가 경쟁력의 핵심과제인 물류·유통관리의 지식과 실무 능력을 갖춘 진정한 의미의 무역물류전문가를 양성하고 있다. 또한 '자격증 취득을 위한 편 및 기회를 확대' 라는 중장기 발전 계획을 수립하고 무역물류관련 자격증 종합정보실 구축 제1단계 사업을 완료, 2009년에는 유통관리사와 국제무역사 자격증 취득을 위한 동영상 및 자료집을 제작하는 2단계 사업을 진행하였다.

2009 학과경쟁력 사업 국제무역물류학과는 "자격증 취득을 위한 편 및 기회 확대" 라는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무역물류관련 자격증 종합정보실 구축 제1단계 사업을 완료, 2009년에는 제2단계 사업으로서 유통관리사와 국제무역사 자격증 취득을 위한 동영상 및 자료집을 제작한다는 계획이다. 이 사업은 물류관리사에 이어 유통관리사 및 국제무역사 자격증 취득 서비스를 추가 제공함으로써 무역 및 물류 관련 대학 중 최고의 자리를 선점하고 학과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등 긍정적인 기대 효과가 예상된다.

Mini Interview

금융보험학과 서영수 교수

온라인 벽 극복,
감동적 학창생활 가능

"사이버대의 유일한 금융보험 학과라는 자긍심과 최고의 금융 전문가를 키운다는 열정이 바로 우리 금융보험학과만의 힘입니다."



서영수 교수는 금융보험학과가 장점과 혜택이 많은 학과라고 자부한다.

"우리 학과에 입학하면 금융보험 분야의 전국적인 네트워크를 자연스럽게 공유할 수 있게 되고, 주식 등 금융관련 재테크 동호회를 통해 실질적인 투자경험과 그 노하우를 접할 수 있습니다. 또 선배 멘토링과 해당분야에서 정통한 석좌교수, 전임교수, 외래교수 등 현장실무를 겸비한 최강의 교수진, 담당 지도교수의 인간적인 배려는 온라인의 벽을 뛰어 넘어 알차고 감동적인 대학생활을 가능하게 합니다."

**무한경쟁시대를
앞서가는 힘
금융보험학과**

금융보험학과는 증대되는 금융위험과 무한경쟁시대에서 절실하게 요구되는 금융에 관한 전반적인 원리를 습득하고, 효율적인 자금의 조달과 운용, 증권투자, 외환관리, 위험관리 및 은행과 보험 등에 관한 새로운 금융기법을 연마하여 21세기를 선도할 수 있는 금융인을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지난 2000년 개설된 이후 국내 사이버대학의 금융·보험 분야에서 가장 비약적인 발전을 해 왔으며, 유일한 금융보험 학과로서 선두자리를 지켜오고 있다. 현재 재학생, 교수진, 시설 등 규모 면에서 최고의 수준이고, 강의콘텐츠, 대학원진학 등에서 최다, 또한 최초로 금융종합 교과목 개설 등 여러 면에서 확고한 위치를 다지고 있다.

금융보험학과 졸업생들은 자격증을 취득해 국내외 금융기관이나 연구소, 금융 관련 컨설팅회사에서 CFP, AFPK, 손해사정사, 증권투자상담사, 선물거래상담사, 금융자산관리사(FP), 외환관리사, 신용분석사, 재무분석사 등의 전문가로 활동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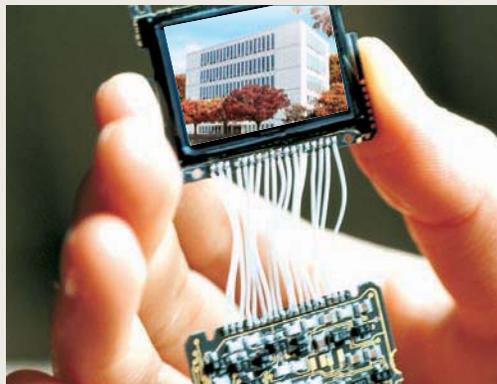


기술과 창조의 첨단화

인터넷의 급속확산으로 인터넷 방송, 유·무선통신, 가상공간 등 많은 사이버 비즈니스가 태동하면서 인터넷 산업은 최근 국가경제의 핵심적인 요소로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유비쿼터스 사회에서는 세계적으로 무한 기술경쟁이 보다 더 심화될 것이며 IT 기술력을 갖춘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인재양성은 필수 불가결한 요소가 되고 있다. 특히 정보화 사회로의 변화 속도가 가속화되어 가는 시점에서 디자인과 멀티미디어의 중요성은 날로 점증되고 있다. 광고 일러스트레이션, 출판 일러스트레이션, 캐릭터 디자인 및 2D, 3D 등의 새로운 멀티미디어 수단을 위한 디지털 콘텐츠의 개발과 웹 디자인에 이르기까지 산업 디자인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대표적인 미래 유망 산업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IT 기술을 선도하는 컴퓨터 정보통신학과

컴퓨터정보통신학과는 21세기 유비쿼터스 시대를 앞당기기 위한 핵심기술, 즉 컴퓨터 H/W 및 S/W, 정보통신기술, 보안시스템, 응용서비스 기술 등에 관한 이론과 실무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IT 산업현장의 첨단기술 변화에 적응력이 강한 실무교육과 더불어 대학원 진학을 통한 미래 전문기술인을 양성하고 있다. 졸업 후에는 이동통신업체, 정보통신회사, 광고회사, IT분야 관련업체, 멀티미디어 콘텐츠 개발업체, 인터넷홈페이지 제작업체, 벤처기업 창업, 국가기술직 공무원 등 다양하고 전문적인 분야에서 활동할 수 있다.



▲정보통신분야는 세계가 주목하고 국가적으로도 신성장동력산업으로 키우고 있는 만큼 미래가 밝다.

창의적 디자인 브레인 멀티미디어 디자인학과

멀티미디어디자인학과는 컴퓨터와 멀티미디어가 접목된 새로운 분야의 창조를 선도하는 창의적인 신세대 전문 인력 양성과 컴퓨터그래픽 분야에 필요한 기본이론 및 실무능력 교육에 앞장서고 있다. 특히 2008년부터 매년 '서울사이버디자인대전'이라는 공모전 사업을 시행함으로써 우수한 고교생 및 전문대학 졸업생 유치, 컴퓨터그래픽 관련 업계 스폰서십을 통한 홍보 및 재취업 시스템 구축, 문화콘텐츠진흥원 및 정보통신연구진흥원 전공 관련 사업 제안을 위한 기반 조성 등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 'Green 상상'을 주제로 열린 '2009 서울사이버디자인대전'의 수상작들. 멀티미디어디자인학과는 '인간-상상-문화커뮤니케이션'을 통한 21세기형 컴퓨터그래픽 디자인 전문가 양성을 목표로 2008년부터 이 공모전을 개최하고 있다.

2009 학과경쟁력 사업 | 멀티미디어디자인학과는 2008년도에 이어 전국 전문대학 교수와 실업계고교 교사 등을 대상으로 멀티미디어 디자인학과가 중심이 되는 협회를 구성하고 '제2회 2009 서울사이버디자인대전' (주제: Green 상상)이라는 공모전 사업을 시행했다. 이 사업은 우수한 고교생 및 전문대학 졸업생의 본교 유치를 위한 동기 유발, 컴퓨터그래픽 관련 업계 스폰서십을 통한 홍보 및 재취업 시스템 구축, 문화콘텐츠진흥원 및 정보통신연구진흥원 전공 관련 사업 제안을 위한 기반 조성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

Mini Interview

컴퓨터정보통신학과 오창환 교수

미래시장 창조하는 블루오션 개척 선두주자

“우리나라의 정보통신산업은 국가 경제를 이끌어 가는 핵심성장동력으로 성장하여 IT인프라, 반도체, 디지털TV, TFT-LCD, 휴대전화 단말기 분야 등에서 우리나라 경제 성장의 20% 이상을 기여하면서 국가 경제의 성장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오창환 교수는 정보통신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더 나아가 국가 경제발전과 지식경제사회로의 도약을 선도하는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첨단 기술 개발을 위한 인재 양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한다.

“우리 컴퓨터 정보통신학과는 지속적인 정보통신산업의 발전을 이끌어갈 인력양성 기반을 조성하여 미래 정보통신산업의 블루오션을 개척하는 선두주자 될 것을 목표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하철 4호선
미아역

‘서울사이버대학역’ 이름 병기



앞으로 지하철 4호선 ‘미아역’이 ‘서울사이버대학역’이란 이름으로 함께 불리어지게 됨으로써 학교 지명도 제고 및 이미지 개선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평소 직선거리로 2백미터가 채 안될 정도로 가까운 거리에 위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아역 명에 서울사이버대학교 이름을 병기하는 결정은 쉽지 않았다. 매년 적지 않은 시설들이 역 병기를 희망하고 있으며 최종 결정은 서울시가 운영하는 지명위원회가 한다. 이번 병기 결정이 내려지기까지 대학당국은 IT강국의 수도인 서울에 온라인 고등교육을

하는 대표적인 대학시설이 지하철 노선에 표기되어야 한다는 논리를 제시했다.

아울러 한국의 대학들이 세계적으로 최고 1백대 대학에 진입하기는 어렵지만 서울사이버대학교는 이미 세계 10대 온라인 대학에 진입했다는 점을 들었다. 고령화 시대를 맞아 평생교육이 더욱 중요해지는 시점에서 일반인이 많이 이용하는 지하철 역명에 온라인 교육의 대표적인 고등교육기관인 서울사이버대학교 명 병기는 미래지향적인 결정으로 높이 평가되어야 할 것이다.

제12회 여성소비자가 뽑은
좋은 기업 대상 수상

사이버대학 부문... ‘활동 중심형’ 콘텐츠 개발로 차별화

서울사이버대학교는 11월 20일 여성신문사가 주최한 ‘제12회 여성 소비자가 뽑은 좋은 기업 대상’ 시상식에서 사이버대학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여성신문사가 주최하는 ‘여성 소비자가 뽑은 좋은 기업 대상’은 여성소비자의 요구와 기대를 조사해 여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키워드를 도출하고 그에 적합한 제품 및 브랜드를 생산하는 기업들을 가려내기 위한 상으로 단순히 여성소비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기업에서 나아가 사회적 책임을 성실히 실천에 옮기고 있는 이른바 ‘굿 컴퍼니(Good company)’로 꼽기에 손색이 없는 기업들 중 하나로 서울사이버대학교가 선정되었다. 이번 수상을 계기로 서울사이버대학교는 탁월한 시스템과 차별화된 콘텐츠를 통해 최상의 실용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시에 글로벌 온라인대학을 구축하는데 더욱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서울사이버대-스톡홀름대 공동 학술대회 스웨덴 '사회복지' 폭넓은 인식으로 국내 발전에 기여



서울사이버대학교는 10월 31일 교내 국제회의실에서 스웨덴 스톡홀름대학교 사회복지학과와 공동으로 '스웨덴 사회복지의 현황과 전망'을 주제로 공동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양교 교수진들이 기념촬영을 위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

서울사이버대학교는 10월 31일 오후 2시 본교 2층 국제회의실에서 스웨덴 스톡홀름대학교 사회복지학과와 공동으로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학술대회는 스웨덴 사회복지의 현황과 전망(Social Work in the Swedish Welfare State)이라는 주제로 정신보건 분야의 거장 앤더스 베리마크(Anders Bergmark) 교수와 아동복지서비스 분야의 마리 살냐스(Marie Sallnas) 교수 등 스톡홀름대 교수들과 서울사이버대 교수진이 공동으로 논문발표를 진행했다. 그 중 마리 살냐스 교수는 최근 국내에서 부각되고 있는 아동보호와 사회서비스(Children at Risk - Child Protection and Social Services)에 대한 논문발표 계획으로 국내 사회복지 관계자들에게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지난 2006년 학술 협약 이후 '유럽의 사회복지' 과목 공동개발 등 활발한 교류를 해온 스톡홀름대 교수진은 29일부터 9박 10일 간의 국내 일정 동안 국내 사회복지기관, 시설 및 주요 시민단체를 방문했다. 또한 이번의 방문에서 스톡홀름대 교수진은 서울사이버대학교 재학생들을 위해 '스웨덴의 사회복지' 과목을 공동으로 개발하는 한편, 향후 진행될 공동연구와 교환학생에 대해서도 함께 논의했다.

정영애 교수, 제27대 한국여성학회 학회장으로 선출



지난 11월 14일 이화여대에서 열린 한국여성학회 제25차 추계 학술대회 총회에서 제27대 한국여성학회 학회장으로 본교 노인복지학과 정영애 교수가 선출되어 1년간 임기를 맡는다. 한국여성학회는 1984년 정규대학과 관련 교육·연구기관에서 여성학 및 인접분야의 강의 또는 연구에 종사하는 회원들 간의 협력과 여성연구 확대를 목적으로 구성되었으며, 현재 약 900여명의 회원이 가입되어 있다.

제2회 2009 서울사이버디자인대전 개최



대상 양호승 학생 작품

서울사이버대학교는 21세기형 컴퓨터그래픽 디자인 전문가를 양성하고자 '제2회 2009서울사이버디자인대전'을 성황리에 개최하였다. 'Green 상상'을 주제로 열린 이번 서울사이버디자인대전 응모분야는 ▷멀티미디어 콘텐츠 부문 ▷시각디자인 부문 ▷사진부문 ▷교사 및 교원 부문 등 총 4부문이며 대상을 비롯한 수상작들은 총 1,500만원의 상금과 12월 3일부터 8일까지 해화동 국민대 제로원 디자인 센터에서 전시되었다. (특선 이상) 시상식은 12월 중순경 서울사이버대학교에서 열린다. 자세한 사항은 공모전사이트(<http://multi.iscu.ac.kr/greensang>)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국대학신문 대학부문 대상 수상



서울사이버대학교는 10월 13일 서울클럽 한라산룸에서 열린 한국대학신문 대상 시상식에서 교육 콘텐츠 부문 우수대학 대상을 수상하였다. 한국대학신문 대학부문 대상은 대학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난 2005년부터 한국대학신문이 제정한 상으로 국내 고등교육의 질적 개선과 발전을 이룬 대학을 대상으로 시상하고 있다.

한마음대축제 성황리 개최



체육대회 경기 중 교수-학생 이어달리기에 보건행정학과 김미주 교수, 법무행정학과 나승성 교수, 컴퓨터정보통신학과 윤경목 교수 등이 달리고 있다.



노인복지학과 학생들이 노인을 위한 댄스를 선보이고 있다.

감과 친밀감을 높이고 학교에 대한 애교심을 기르고자 한다"며 "서울사이버대학교 재학생들은 이 밖에도 100여개의 다양한 동아리활동과 문화축제 등을 통해 교류하며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해외에 거주하는 재학생 등 축제에 참석하지 못한 학생들을 위해 홈페이지를 통해 축제 행사가 실시간으로 중계되었다.

서울사이버대학교 총학생회는 10월 10일 본교 대운동장에서 1,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7회 한마음 대축제'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대축제는 '꿈을 여는 열정! 도전하는 미래!'라는 슬로건 아래 재학생과 졸업생, 가족 및 교직원 전체가 문화를 즐기고, 열정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명랑운동회, 길쌈놀이, 장기자랑 등 학과별 체육경기가 열렸으며, 가족들을 위한 게임도 별도로 마련되어 참석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특히 이날 행사장에서는 서울시장 애인복지시설협회와 공동으로 저소득 장애인을 돕기 위한 모금 캠페인도 펼쳐져 따뜻한 마음을 함께 나누는 자리를 마련했다.

서울사이버대학교 총학생회 이상영 회장(부동산학과 3학년)은 "이번 오프라인 행사를 통해 온라인에서만 만나던 학우들간의 유대

사회복지학과 심포지엄



사회복지학과는 11월 21일 본교 2층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지역아동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사회복지학과 박형원 교수가 '지역아동센터 분석 및 향후과제'라는 주제를 비롯, 박영숙(보건복지가족부위탁 지역아동정보센터장), 이은경(강릉 산들바다지역아동센터 대표), 강미정(광주 지역아동센터 대표), 최수연(부산 우리누리지역아동센터 대표) 등 여러 강사가 지역아동센터의 발전방향에 대해 발표를 하고 토의를 진행했다.

상담자격증 소지 전문가 초빙 심포지엄

상담자격증(청소년상담사, 상담심리사, 정신보건 임상심리사, 놀이치료사) 소지 전문가 초빙 심포지엄이 11월 7일 본교 4층 차이코프스키홀에서 개최되었다. 본 행사는 상담전문가 양성 과정과 학생의 진로지도 측면을 고려하여, 학생들이 상담관련 다양한 자격증을 준비하고 계획하는데 도움을 주고 전문가 자격증 취득률을 높이기 위해 기획되었다.



서울사이버대학교, 1:1 맞춤형 학생지원서비스 지원 차별화된 사이버교육 경험하세요

사이버대학교는 시간과 장소에 구애 받지 않고 교육을 받을 수 있어 직장인, 주부, 해외거주자 등에게 새로운 교육 수단으로 각광 받아왔다. 그러나 중도에 학업을 포기하는 중도 탈락은 인터넷 강의, 사이버 대학 등의 한계로 지적되어 왔다. 그러나 서울사이버대학교가 멘토링 제도, 전담 조교제도 등 1:1 맞춤형 학생지원서비스를 실시해 온라인 학습의 한계를 극복했다는 평을 받고 있다.

또한 서울사이버대학교는 중도 포기 수강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러닝메이트'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러닝메이트 프로그램은 멘토링 제도를 개선한 프로그램으로 선배들의 학습스케줄 관리법, 오답노트 작성법 등 선배들의 학습 노하우를 직접 전수받는 제도이다.

2010 수첩 및 카렌다 신청 이벤트

서울사이버대학교에서는 경인년 새해를 맞아 2010 최신 다이어리 및 책상용 달력을 제작하였다. 이에 12월 1일부터 12월 11일까지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2010 수첩 및 카렌다 신청하기 이벤트를 진행하였다. 신청한 모든 재학생들에게는 2010 수첩 및 카렌다가 집으로 배송된다.



SCU동정

허묘연 교수, '국가대표' 심사위원 위촉



상담심리학과 허묘연 교수가 10월 25일 신촌의 쇼 스타일 샵에서 개최된 KT의 '국가대표' 선발전에서 국의 광고모델인 산악인 엄홍길 대장과 영화 국가대표의 실제 모델인 스키점프 국가대표팀의 김흥수 코치와 함께 최종 심사위원으로 위촉되었다.

이정원 교수, 경찰 및 육군 자문위원 위촉



군경상담학과 이정원 교수가 경희학 경찰청장으로부터 경찰청 상담전문위원 위촉장을, 교육사령관 한기호 중장으로부터 육군 리더십 발전 자문위원 위촉장을 받았다.

김영민 교수, e-learning 물류교육 논문 발표



국제무역물류학과 김영민 교수는 한국유통경영학회에서 발간하는 「유통경영학회지」(제12권 제2호)에 'e-learning 물류교육에서 물류 학습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란 주제로 논문을 발표했다.

차명희 교수, ICCIT 국제컨퍼런스 주제발표



게임애니메이션학과 차명희 교수는 11월 24일부터 26일까지 서울에서 개최된 국제 컨퍼런스인 제4회 ICCIT 대회에서 'Design of Memory Architecture for Autonomous Virtual Characters using Information of Visual Attention and Quad-Graph'를 주제로 논문을 발표했다.

박종선 교수, 4권의 공저 발간



교양학부 박종선 교수는 11월 12일 (사)이러닝학회 이사로 선임된 데 이어, 11월 중에 <실무 책임자를 위한 사례중심의 요구분석>, <구성주의 기반의 교수학습 전략수립> (최고의 이러닝 운영실무) <콘텐츠 품질인증 길라잡이> 등 4권의 전문서적을 공저로 발간했다.

니승성 교수, 상법강의 관련 교재 완성



법무행정학과 니승성 교수는 올 2월에 출간한 상법총칙·상행위법 개설 보험법 개설 해상법 개설에 이어 11월 회사법 개설과 어음수표법 개설을 출간했다. 이번 출간을 통해 상법강의 관련 교재를 모두 완성하는 성과를 올렸으며, 특히 회사법은 2009년에 개정된 회사법 내용을 반영하고 있다.

이재웅 교수, 부동산 중개업자의 보수청구권 연구논문 발표



부동산학과 이재웅 교수가 한국경영법률학회가 발행하는 경영법률 제20집 제1호(2009년 10월)에 "부동산매매 등의 계약 해제와 부동산중개업자의 보수청구권에 대한 고찰"이란 제목의 논문을 발표하였다. 이 논문은 중개업자의 중개에 의해 성립된 부동산매매 등의 계약이 일정한 사유에 의해 해제된 경우에 중개업자의 보수청구권의 발생 여부에 대해 일본의 판례와 학설을 중심으로 분쟁사례별로 유형화하여 정리한 글로서,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중개업자의 보수청구권에 관한 연구가 전무하다는 점에서 우리민법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향아 교수, e-Learning 관련 논문 발표 및 전시회



멀티미디어디자인학과 이향아 교수가 한국디자인트렌드학회에서 발간하는 한국디자인포럼 논문집(Vol. 24)에 '원격대학 e-Learning 콘텐츠 색채 분석을 통한 색채적용 기준 제시'란 주제로 논문을 발표하였다. 또한 9인9색(nine artists nine colors) 전시회와 미국 캘리포니아 주립대학 노스리지(CSUN)에서 열린 제4회 United Designs 국제디자인비엔날레 전시회에 작품을 출품하였다.

이성태 교수, 한국디자인트렌드학회 이사 선임 및 작품 전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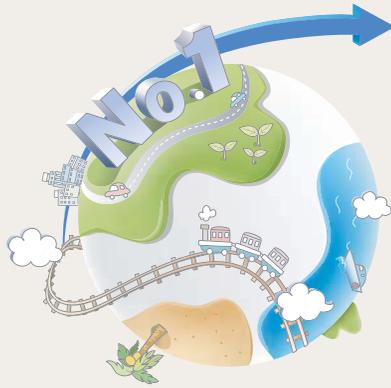
멀티미디어디자인학과가 이성태교수가 한국연구재단 등재지인 한국디자인트렌드학회 이사로 선임되었으며, 11월 27일부터 29일까지 코리아디자인센터 전시장에서 열린 2009 회원 초대전 영상·사진·콘텐츠 분야에 『初行 - olleh!』라는 작품을 출품 전시했다.

이은주 교수, 사회복지 관련 논문 발표



사회복지학과 이은주 교수는 <서울시 영구임대주택 도시빈민의 삶의 경험>(사회이론 36호), <이웃환경 무질서와 청소년 우울간의 관계>(청소년학연구 16권 10호), <의무적인 비동시 온라인 상호작용의 특성과 의미에 관한 연구>(교육정보미디어연구 15권 1호) 등 사회복지관련 논문을 발표했다.

온라인 인프라 구축한 미래교육의 산실
서울사이버대학교



마음 속 담아둔 큰 꿈,
 이곳에서 이루자

●●● 서울사이버대학교는 학생들의 전문 지식과 창의성을 극대화하는 평생교육의 동반자이자 세계적인 e-learning 교육기관으로서 그 위상을 정립해나가고 있다. 성인 전문교육 수요를 충족시키고 사이버대학의 특성에 맞는 경쟁력을 키워나가고 있는 서울사이버대학교가 최근 커리큘럼과 수업의 질을 강화하며 사이버 새 내기를 맞이하기 위해 분주하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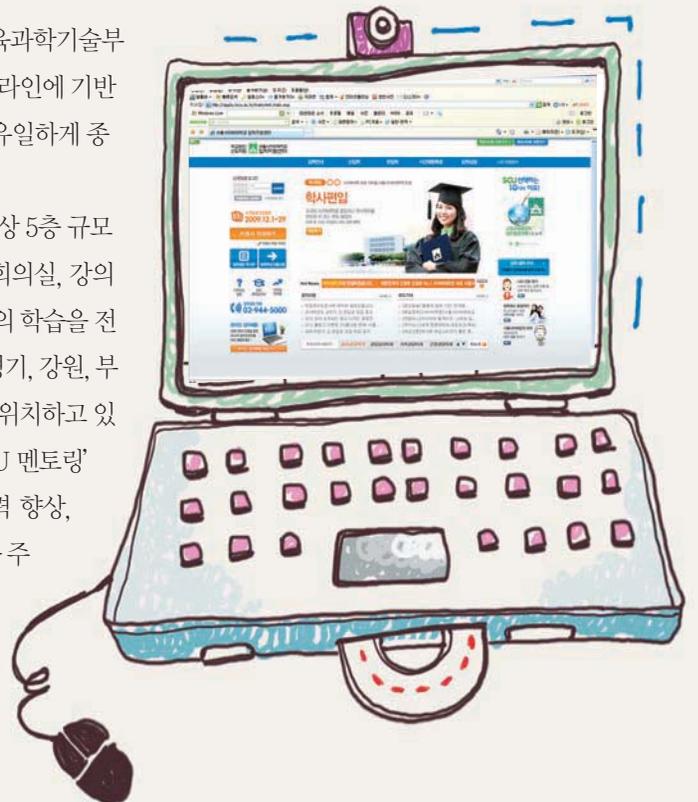
인 터넷을 통한 정규 4년제 학사학위 취득이 가능한 서울사이버대학교는 사이버대학 교육이 전무하던 2000년 국내 처음으로 사이버대학 인가를 받았으며, 9년 동안 8천 여명의 학사 학위자를 배출한 온라인 교육의 최고 명문대학교이다. 스펙홀름대 교수들의 직접 강의를 비롯한 국내외 명문대 출신의 교수들이 명품 강의를 진행하고 있다. 특히 석학 교수진으로 구성된 전임 교수들은 1명당 학생 150명을 지도하고 있으며, 이는 국내 사이버 대학 중 최고의 교수 확보율을 자랑하고 있다.

또한 서울사이버대학교는 재학생 중심의 교육환경 조성과 차별화된 독자적인 콘텐츠를 확보하고 있다. 최첨단 멀티미디어 기법을 강의에 도입하는 것 뿐 아니라 국내 대학 최초로 IMS(Instruction Management System) 글로벌 러닝 협회(GLC)에 정식 회원으로 가입해 사이버대학으로는 드물게 내용 중심의 기존 콘텐츠에서 벗어난 '활동 중심형' 한국형 교육 콘텐츠 모듈화를 개발 중으로, 콘텐츠 개발에만 100억원 이상을 투자하고 있다.

이러한 양질의 지원을 바탕으로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실시한 사이버대학평가에서 오프라인에 기반을 두지 않은 순수 사이버대학으로서 유일하게 종합평가 최우수 대학으로 선정됐다.

국내 사이버대학 최초로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의 최첨단 단독 캠퍼스를 조성해 국제 회의실, 강의실, 세미나실, 실습실 등에서 재학생들의 학습을 전폭 지원하고 있다. 또한 지역학습관이 경기, 강원, 부산, 대구, 광주, 충남 연무대 등 전국에 위치하고 있다. 특히 선후배가 함께 참여하는 'SCU 멘토링' 프로그램은 신입생의 온라인 학습 능력 향상, 선후배 간의 유대관계 증진에 큰 효과를 주고 있다.

한편, 서울사이버대학교는 오는 12월 1일(화)부터 14개 학과 신·편입생을 모집한다.



■ 공동 학력자격

| 구분 | 학력 자격 |
|---------|--|
| 신입학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등학교 졸업(예정) 이상의 학력 소지자 검정고시 합격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 2학년 편입학 |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전문대학 졸업(예정)자 ② 4년제 대학교에서 1학년(2개학기) 이상을 수료하고 35학점 이상을 이수한 자 ③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및 평생교육법에 의하여 취득한 학점이 35학점 이상인 자 ④ 기타 법령에 의하여 전 각 호의 해당자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된 자 |
| 3학년 편입학 |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전문대학 졸업(예정)자 ② 4년제 대학교에서 2학년(4개학기) 이상을 수료하고 70학점 이상을 이수한 자 ③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및 평생교육법에 의하여 취득한 학점이 70학점 이상인 자 ④ 기타 법령에 의하여 전 각 호의 해당자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된 자 |

■ 입학전형별 지원자격

| 전형유형 | 지원자격 | 모집학년 |
|--------------|---|------------|
| 특별전형 | 직장인,개인사업자, 농어촌거주자, 전업주부, 실업계고등학교졸업자(신입학만 해당), 전문대학졸업자(편입학만 해당) | 전학년 모집 |
| 일반전형 | 학력자격을 충족하는 분들은 누구든지 지원가능 | 전학년 모집 |
| 산업체·군 위탁생 전형 | 산업체 위탁 : 본교와 산학, 관학 협력협정을 체결하고 있는 기관 재직자 | 1학년 3학년 |
| | 군 위탁 : 부사관 이상 직업군인 및 군무원으로서 [학군 제휴]에 의하여 각 군 참모총장의 추천확인을 받은 자 | 1학년 3학년 |
| 학사편입 전형 | 국내외 4년제대학을 졸업하고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 3학년 |
| 장애인 전형 | 장애인 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에 의거한 장애등급 1~3등급에 해당하는 자 | 1학년 |
| 교육기회 균등전형 |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 | 1학기 |
| 재외국민 전형 | 교포자녀 또는 외국군무 재외국민 자녀 | 1학년 |
| 새터민 전형 | 새터민 : 교육보호대상자증명서 제출이 가능한 새터민으로서 거주지 보호기간(5년) 중이거나 고교졸업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후 5년 이내 입학자 | 1학년 |

■ 모집인원

| 2010 상반기 모집인원 | | | | | | | | | | | | | | | | | | | | |
|---------------|-------|-----|-------|-------------|----------|-----|------------|------|-----|-----|-----|-----|----|----|----|----|--|--|--|--|
| 학부 | 일반+특별 | | | 산업체군 위탁생 | 학사 편입 | 장애인 | 교육기회 균등 | 재외국민 | 새터민 | | | | | | | | | | | |
| | 신입 | 2편입 | 3편입 | | | | | | | | | | | | | | | | | |
| | 소계 | 소계 | 소계 | | | | | | | 신입 | 3학년 | 3편입 | 신입 | 신입 | 신입 | 신입 | | | | |
| 인간 | 350 | 23 | 446 | 40 | 100 | 134 | 33 | 33 | 13 | 67 | | | | | | | | | | |
| 심리 | 360 | 25 | 471 | 40 | 116 | 152 | 38 | 38 | 15 | 76 | | | | | | | | | | |
| 사회 | 270 | 19 | 203 | 40 | 53 | 84 | 21 | 21 | 8 | 42 | | | | | | | | | | |
| 경상 | 250 | 30 | 223 | 40 | 46 | 80 | 20 | 20 | 8 | 40 | | | | | | | | | | |
| IT | 120 | 24 | 156 | 20 | 38 | 50 | 12 | 12 | 5 | 25 | | | | | | | | | | |
| 소 계 | 1,350 | 121 | 1,499 | 180 | 353 | 500 | 124 | 124 | 49 | 250 | | | | | | | | | | |
| 총 합 | 2,970 | | | 533 | | 500 | 124 | 124 | 49 | 250 | | | | | | | | | | |



- 발 행 처 서울사이버대학교
(142-700)서울시 강북구
미아3동 193
- 발 행 인 김수지
- 편집주간 이향아 교수
- 편집위원 고윤승, 김영민,
권기남, 이성태 교수
- 발 행 일 2009년 12월 10일
- 기획편집 서울사이버대학교
출판부 (02)944-5216
(주)디플랜네트웍
(02)518-3430